

현행 내신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이 성 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사절학연구부

필자가 처음 이 원고를 청탁받았을 때 사실 주저하는 마음이 앞섰다. 그 이유는 우선 주제 자체가 필자의 전공(교육철학)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둘째로는 7년 남짓의 외유를 마치고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필자의 입장에서 최근 몇 년간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거듭해 온 대입제도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이 자칫 현실적 감각이나 분석의 깊이를 결여한 다소 추상적이고 표면적인 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한 선입관(preconception)이 없는 상태에서 그 문제에 접근해 보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다는 판단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첫 부분에서는 내신제의 취지 및 배경을 내신제의 변천사와 함께 다루었고, 둘째 부분에서는 내신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대입 반영률·고교교육 정상화·고교 평준화·대입제도로써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논의

하였으며, 끝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대입제도 전반의 문제점 및 개선책의 한계를 사회철학적인 관점에서 간략히 언급하였다.

1. 내신제의 배경

현재 대학 입시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교내신제는 198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채택되어 왔다. 물론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 사이에 중·고 및 대학 입시에서 내신제가 부분적으로 권장·시행된 바 없지 않았고, 특히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고교내신제에 대한 연구가 다소 활기를 띠면서 일부 대학이 고교성적을 입시에 반영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전 대학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내신제의 원년(元年)은 1981년으로 봄이 무난할 듯하다. 당시 내신제는 소위 “7·30 교육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조치들은 그 내용상 다분히 '구급적'인 성격을 띤 것들이었으며 따라서 사회 일각에서는 이들 조치들이 제반 교육 문제들의 근원적 치유책이라기보다는 정통성이 결여된 신군부가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취한 정치적 행위의 일부라고 치부·비판하는 견해도 있었다. 사실 이들 조치중 일부는 정치·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기도 하였고 유아무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신제는 1981년 도입 이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완·개정되어 왔던 바, 내신제의 실태 및 문제점을 논의하기에 앞서 그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신제의 전면적인 실시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기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대입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로 구성된 종전의 대입제도는 1970년대 말에 이르러 교육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즉,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당시 대부분의 대학들은 자체별로 출제·관리되는 본고사 성적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게 되었는데, 이 본고사가 특정 과목(주로 국·영·수)에 치중하다 보니 기타 교과에 대한 무관심은 물론 교과과정의 파행적 운영 및 극심한 과외 수업 현상까지 초래하였으며 고교교육의 위상과 학교의 권위가 실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고교 학업 성적을 대입에 반영하는 장치를 통해 교과 전반에 걸친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교육의 정상 기능을 복원시킨다는 의도로 내신제가 채택된 것이다.

둘째, 내신제의 도입은 대학 입시제도의 타당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주창되었다. 사실 내신제 전면 채택 이전의 입시는 그것이 예비고사가 되었건 본고사가 되었건 간에 1회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다. 물론 1회성 평가도구의 타당도가 반복적인 것에 비해 항상 낮다고는 볼 수 없으나, 단 1회에 걸친 시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종전의 제도에 대해

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며, 특히 내신 성적을 일종의 '지속적 성향'에 대한 기록으로 볼 때 내신성적의 설명력이 1회적 우연성이 개입될 수 있는 다른 어느 지수보다 클 것이라는 가정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 것이었다. 더욱이 1981년 이전에 수행된 국내외의 연구들을 통해 고교 내신성적과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 사이에는 매우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에서 내신제는 학생들의 고교 내신성적이 대입 본고사와 예비고사 점수 어느 것보다도 타당한 대학 진학 선발 도구가 되리라는 기대 아래 채택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내신제는 이의 적용을 통해 명실상부한 고교 평준화와 지역간 균형있는 학교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식에서 출발하였다. 1974년 고교간의 극심한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서울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 걸쳐 실시되었던 고교 입시 철폐는 그 후 적용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고교간의 차이는 종전에 비해 감소되었다. 그러나 학교별 대학 입시 결과에 따라 소위 '신흥명문고'가 등장하면서 평준화는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해 갔으며 대학입시 성적이 좋은 학교를 찾는 빈척적인 전학이 횡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은 실제 학교수업과 동떨어진 당시 대학입시체제에 있었던 바,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내신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내신제 채택의 취지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대학선발기준의 타당성 제고라는 효율성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가치의 측면이다. 이러한 취지를 염두에 두고 내신제의 현주소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내신제의 현주소

1981학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내신제는 그 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가운데 부분적인 문제점들이 논의·개선되어 왔으며, 1994학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내신제는 종전의 것에 비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있다.

우선 종래의 내신제의 전체 입사 반영률이 30% 이상이었던 것이 1994년부터 40% 이상으로 증가되었으며 종전의 교과성적 10등급이 15등급으로 재조정되었다. (물론 과거에도 15등급의 적용이 있었던 적은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불과 4.9%에 불과하던 내신성적의 '실질반영률'(내신 최고등급과 최하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대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10.2%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다음으로 학과 성적(90%)과 출석 상황(10%)만으로 구성되었던 내신성적이 1994학년도부터는 학과 성적(80%), 출석 상황(10%), 학교생활 성적(10%) 등을 포괄하게 되었으며, 학교생활의 평가 영역으로는 특별활동·행동발달 및 교내·외 봉사 활동이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모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새로 적용되고 있는 내신제는 종전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우선 교과성적의 등급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등급간의 격차를 완화시킴은 물론 등급·경계선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수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학교생활성적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전인교육의 실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보완·개선된 내신제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필자는 이와 같은 비판들의 분석을 통해 현행 내신제를 재음미해 보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특

기할 만한 사항은 내신제에 대한 비판들 중 내신제의 폐지를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현행 내신제에 대한 이견들은 최소한 외형상으로는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지지'를 견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그 논리상 내신제의 취지와 양립할 수 없거나 혹은 내신제의 효율성 및 실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것들인 바, 내신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고찰할 때 바로 이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행 내신제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지적 사항 중의 하나는 제도 자체가 학교간의 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현행 내신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별 수험능력에 따른 내신 성적의 재조정을 염두에 두고 고교 국가 학력평가제 같은 장치를 대안으로 상정한다. 이 같은 발상은 특정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제거하고 수험생들의 능력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현행 내신제의 기본 취지인 교교간의 평준화 및 균형있는 발전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관리 아래 전국 고등학교에 대한 학력평가를 실시할 경우, 현재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일부 학교간 지역간의 격차를 공식화하여 특정 지역 및 학교에 학생인구를 편중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어느 특정한 학생의 내신 성적이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국가학력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될 것이며 따라서 내신 성적 그 자체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현행 내신제는 특정한 정부 부처가 관리하는 공적인 제도이다. 그리고 대학 입시 방침이 고교 교육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내신제는 한낱 대입제도의 일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무릇 민주사회의 공적인 제도에는 명분이 함의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즉, 이러한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논리에 기초한 제도는 그 효율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신제는 평등이라는 명분에서 출발하였다. 비록 학교간 학력격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격차 자체가 개개의 학교, 학생, 교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정치·경제·사회적 요인들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격차는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마땅히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격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집단에 대해서는 응분의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내신제에 깔려있는 신념이자 가치인 바, 현실적인 학교 격차를 강조하는 입장은 바로 이러한 명분과 가치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내신제와 성격상 상이하기는 하지만 명분상 유사한 대학 입학 선발제도를 미국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학, 특히 주립대학들은 매해 신입생 총원의 일정한 부분을 흑인, 히스패닉, 인디언 등의 소수민족 집단(minority groups)으로 충원시켜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이들 소수민족들의 학력이나 대학 수능능력은 백인이나 아시아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나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제반 구조적 요인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가장 큰 불이익을 겪는 이들 인종 집단에게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실존하는 능력차에 집착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제도는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것으로 매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이후 여러 방면으로부터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종간의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에서의 필자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박이 있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편중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 확실적인 내신성적 산출 방법에 의해 일부 학생들이 당하는 불이익은 어떻게 보상되어야 하는가?' 다소 케번처럼 들릴지는

물라도, 필자의 견해로는 이들 집단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은 이들이 누리는 다른 종류의 특혜에 의해 상쇄되고도 남음이 있다. 즉, 이들이 내신성적이라는 면에서 약간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본고사나 수능시험에서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통해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현실이야 어찌 되었건 명분만이 중요하다는 식의 억지는 아니다. 현실과 완전히 유리된 제도라는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는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점이나 모순이 어떤 가치를 전제로 한 제도에 의해 어느 정도 치유될 수 있는 반면, 현실을 지나치게 당연시 할 때 그러한 모순과 문제점은 제거되기 커녕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현행 내신제에 대한 비판 중 의무반영률 40%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특히 대학교의 입시 관리자들 사이에 지배적인 듯하다. 이들은 학교간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40%라는 비율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영률의 하향 조정 및 대학에의 위임을 촉구한다. 이것은 내신제가 대학선발 도구로서 그리 높은 타당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지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내신 성적과 대학학업 성취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이 양자 사이에는 매우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제의 의무반영률을 낮추자는 주장의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필자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물론 우리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경우 고교 내신성적은 대학 학업 성취에 대한 예언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학 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 (the single most important element)'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제도가 미국의 것을 모방할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무분별한 모방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와 유사한 제도에 관한 한 그들의 제도에 대한 연구가 우리의 것을 개선·발전시키는 데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내신성적 의무 반영률에 대해 한 가지 첨언할 사항은, 현행 내신제에서의 실질반영률이 불과 10% 남짓한 상황에서 이를 하향조정할 경우 자칫 내신제가 요식행위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해 내신제의 효율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내신성적의 실질반영률을 높여 보다 타당한 대학선발 도구로서의 기능을 활성화 하자는 것이다.

셋째로 내신제에 관한 비판 중 제도 자체가 학생들간의 지나친 경쟁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내신제 실시 이전에 비해 같은 학교 학생들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내신제 이전에도 경쟁의식은 존재했으며,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행 고등교육제도가 지속되는 한 경쟁은 어떠한 형태로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 상호간의 과열된 경쟁은 비교육적인 것으로서 지양되어야 마땅하며 이러한 과열 경쟁은 적절한 생활지도나 특별활동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특히 그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1994학년도부터 학생생활 성적이 내신성적에 포함됨으로써 학과성적에서 야기되는 지나친 경쟁의식을 저지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또한 내신제가 학생들의 경쟁심리를 통해 학교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써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

넷째로 현행 내신제에 교육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즉, 소수 교사와 학부모들 간의 부정한 결탁에 의해 내신성적 자체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간 교육계 부조리 현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규모나 심각성이 사회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부조리의 소지는 비단

고등학교뿐 아니라 도처에 산재하다. 한때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일부 대학교 주도의 입시부정 사건들이 이를 잘 반증해 주고 있다. 물론 사회의 제반 분야 중 가장 순수하고 신성해야 할 교육계가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부조리에 오염되었던 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반성이 있어야 하겠지만, 극소수의 비행에 의해 다수가 매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어떤 제도에 오용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 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소수 교통경찰과 운전자들에 의해 비리가 발생한다고 해서 교통경찰 운영체 자체를 비판한다면 그 얼마나 우스운 주장이 될 것인가? 더욱이 교육은 학생·교사·부모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활동인 바, 행여 부조리의 가능성에 지나치게 얽매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식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내신제에 대한 비판은 내신제의 기대효과나 그 타당성에 대해 회의적인 것들이었던 바 이들 비판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의 반론을 제기해 보았다. 사실 내신제는 여러 가지 이견에도 불구하고 고교교육의 정상화·고교의 평준화·대학선발도구 타당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고 현행 내신제가 완벽 무오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필자는 이 글을 마치기에 앞서 내신제를 포함한 대학 입시 전반에 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할까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제도는 그 짧은 역사에 비해 많은 변화를 거쳤다. 대입제도가 개정될 때마다 크게 두 가지 준거가 제시되었는데 하나는 대입

제도의 타당성이고 다른 하나는 대입제도를 통한 과열 대입경쟁의 해소였다고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보다 향상된 선별 도구의 개발을 통해 입시제도의 타당성·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대입제도 개정의 준거로서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후자에 있다. 개정된 대입제도를 통해 과열된 입시 경쟁을 해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연목구어'적인 발상인 것이다. 달리 표현해, 과열 대입경쟁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의 문화적 전통·사회적 통념·경제적 여건 등에 있는데 그 해결책은 엉뚱한 입시제도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뜻이다. 물론 내신제의 도입에서 본 바와 같이 입시제도의 개선이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문제의 발본색원책은 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의 대입정책은 고교교육 전반에 걸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정책입안자나 고교 교사들 어느 한쪽의 책임만은 아니며 이것 역시 우리 교육의 구조적 모순의 일부라

고 할 수 있다. 1993년 현재 우리나라 고졸자들의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률은 약 25%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대입제도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며 조속히 대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다수의 고등학생들은 그들의 필요나 관심과는 무관한 학교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는 대학별고사 제도의 부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학입시의 구성요소가 다양화 되면 될수록 고교교육은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 하며 이 와중에서 수험생은 물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는 바, 이는 국가 전체로 볼 때 엄청난 낭비인 것이다.

고교교육과 대학교육 간의 연관성이 무시되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고교교육이 아직도 국민 대다수에게 최종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입시 정책의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고교교육의 독자적 영역 확보가 절실하다고 본다. ■